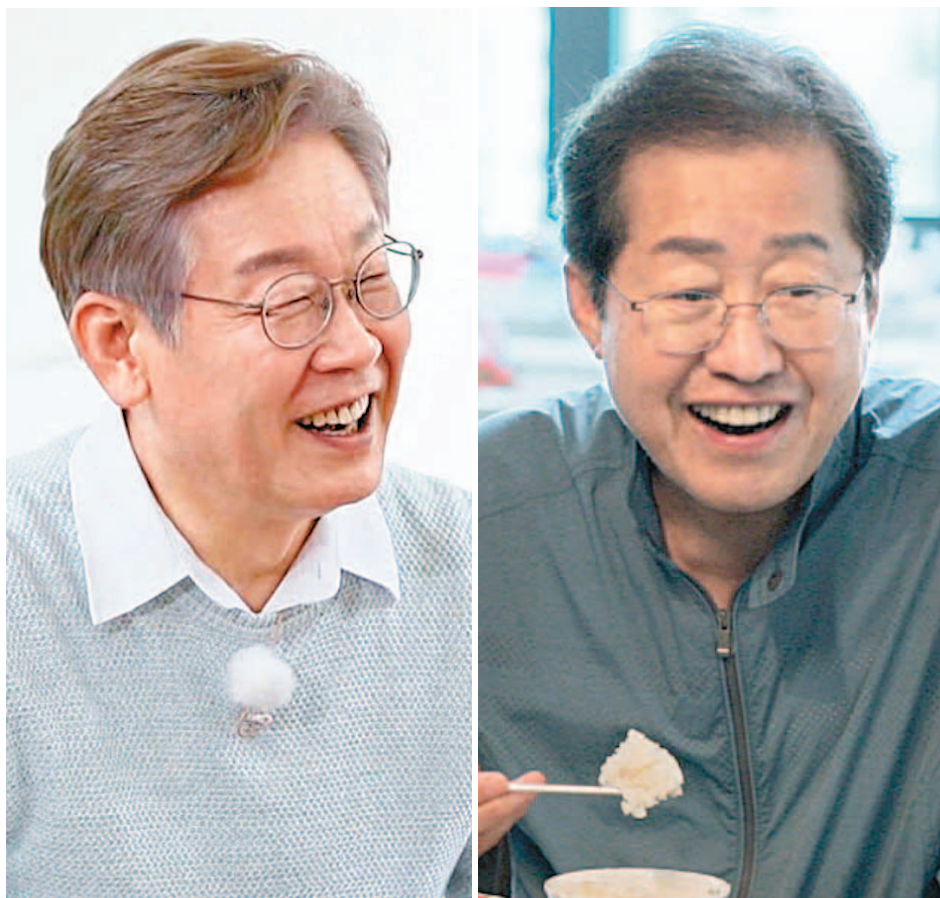


시청률만큼 지지율도 쑥쑥... "나을 만하네"

‘집사부’ ‘와카남’ 평소 시청률 두 배 이 지사·홍 의원 지지율도 상승세 “이미지 쇄신 도움...공약과는 별개” 대선 90일 이전까지 방송출연 가능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예능 나들이’에 나서며 친근함을 무기로 시청자 호기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예능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실제 지지율과 비슷한 추이를 나타냈다. 예능프로그램이 그만큼 최근 치열하게 펼쳐지는 각 정당별 경선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로 떠오른 셈이다.

● ‘집사부’ 시청률, ‘슈퍼워크’ 내다봤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차례로 SBS ‘집사부일체’의 ‘대선주자 빅3’ 특집을 통해 자연스러운 일상을 드러냈다. 윤 전 총장은 연기자 겸 가수 이승기, 개그맨 양세형 등 진행자들에게 직접 불고기 등을 요리해주고, 이 의원은 아내 김숙희 씨와 함께 출연해 러브스토리를 풀어내면서 인간적인 매력을 강조했다. 세 편의 특집 가운데 9%(닐슨코리아)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이 지사는 4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와 TV조선 ‘와카남’으로 각각 자연스러운 일상을 공개했다. 사진제공 | SBS-TV조선

의뢰로 발표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도 1위(28.3%)를 차지했다. (1~2일 전국 성인 1006명 대상) 뒤이어 시청률 7.4%의 윤 전 총장은 28%로 2위였다. 6.2%의 시청률에 머문 이 의원은 3위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16.7%)에 이

어 11.9%로 4위를 기록했다. 특히 ‘2차 슈퍼워크’로 불린 3일 더불어민주당 2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시청률 추이와 엇비슷했다. 이 지사는 58.17%, 이 의원은 33.48%의 득표율

을 나타냈다. 8일 열리는 국민의힘 2차 예비경선에 윤 전 총장과 함께 오른 홍준표 의원은 9월29일 TV조선 ‘와카남’에 출연했다. 평소의 직설화법을 잠시 접고, 털털한 면모로 최근 3%대였던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5.6%까지 끌어올렸다.

● “방송과 대선주자의 ‘원인 전략’” 전문가들은 대선 주자들의 예능프로그램 출연을 “이미지 정치의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진단했다. 4일 김공숙 안동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는 “제작진과 대선 주자들은 각각 시청률 상승과 이미지 쇄신에 충분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인들의 소탈한 모습이 신선하다는 평가와 함께 ‘집사부일체’와 ‘와카남’ 모두 평소보다 2배 가까운 시청률 수치를 기록했다. 예능프로그램이 표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는 의견이 많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과거에는 예능프로그램이나 광고 속 이미지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요즘 시청자는 단편적인 이미지 메이킹에 휩쓸리지 않는다”면서 “본캐(본모습)와 부캐(제2의 캐릭터) 개념에 익숙해진 시청자가 정치인의 공약·정책과 예능프로그램 속 이미지를 분리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스위트홈’ ‘무브 투 헤븐’ AACA 본상 후보에



넷플릭스 ‘스위트홈’과 ‘무브 투 헤븐’이 ‘2021 AACA(Asian Academy Creative Awards)’의 내셔널 위너(National Winner)로 선정돼 본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AACA는 올해 아시아의 콘텐츠 시장을 평가하는 시상식으로, 12월2~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스위트홈’은 감독상(이은복 PD), 여우주연상(이시영), 남녀조연상(이도현·고민서), 시각특수효과상 등 5개 부문 후보에, ‘무브 투 헤븐’은 최고의 드라마 시리즈상, 남우주연상(이재훈) 부문 후보에 각각 선정됐다.

임권택 감독, 부산영화제 ‘올해의 靑 영화인상’



임권택 감독이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은 아시아영화 산업과 문화 발전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아시아 영화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임 감독은 1962년 ‘두만강’이 잘 있거라’를 시작으로 102번째 영화인 ‘화장’까지 60여년간 아시아 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2002년 ‘취화선’으로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받았고, 2005년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명예황금곰상을 수상했다.

중견배우 남문철, 대장암 투병 중 별세



중견배우 남문철이 4일 대장암 투병 중 별세했다. 향년 50세. 소속사 매니지먼트 비케이에 따르면 남문철은 대장암 판정을 받고 투병해오다 이날 오전 6시 20분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빈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례식장 10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6일 오전 6시 30분이며 장지는 부산추모공원이다. 남문철은 2002년 ‘라이터를 켜라’로 스크린에 데뷔해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38사기동대’, ‘녹두꽃’, 영화 ‘검은 사제들’, ‘백두산’ 등에 출연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이상이 공명

‘서브남’ 이상이·공명에게 반했다

연기자 이상이와 공명이 새로운 ‘서브남(두 번째 남자주인공)’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각각 tvN ‘갯마을 차차차’와 SBS ‘홍천기’에서 애절한 삼각관계로 팬스를 펼치며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상이는 10.7%(닐슨코리아)의 시청률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갯마을 차차차’에서 주연 김선호의 연적으로 등장해 긴장감을 형성했다. 극중 대학 후배였던 신민아를 우연히 다시 만나 마음을 키우는 그는 “전에 너에게 고백하지 못한 것을

여태 후회했다”며 팽팽한 삼각관계를 이뤘다. 하지만 신민아와 김선호가 연인이 된 이후에는 이들의 사랑을 응원해주고, 김선호와 묘한 우정까지 나누며 인기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통해 앞서 MBC ‘놀면 뭐하니?’, tvN ‘식스센스’ 등 각종 예능프로그램으로 드러낸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화제성 조사회사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의 9월4주차(9월20일~26일)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8위에 이름을 올렸다. ‘홍천기’에서 조선의 왕자 양명대군을

각각 ‘갯마을차차차’ ‘홍천기’서 존재감 주인공과 삼각관계...극 긴장감 이끌어

연기하는 공명은 화공 김유정을 두고 천문·풍수를 보는 서문관 주부 안효섭과 삼각관계를 이루며 9%대까지 시청률을 끌어올렸다. 귀여운 매력에 돋보이는 캐릭터를 통해 사극의 무거운 분위기를 덜어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형 주황대군 역의 박시양과는 왕위를 둘러싼 싸움으로 드라마에 풍성한 재미를 더하고 있다. 14일부터 방송하는 tvN 예능프로그램 ‘바퀴 달린 집3’에도 나서면서 대중과 접점을 늘려갈 예정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365 결제 서비스 (Everyday-Payment)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휴에도...

1년 365일 카드 결제 후 1분 바로입금

단말기 없이 카드결제 가능 (수기 결제)

P.G (Payment Gateway)사란?

신용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한 뒤 수수료를 받는 업체를 말한다.

- 매일경제 시사용어사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

대리점 모집

(가맹점 한 곳 매출을 월500만원 이라고 가정 했을경우 수익 예상표)

모집구분	가맹점수	월 매출	월 소득	연간소득
1개월	20	1억원	150만원	1,800만원
3개월	60	3억원	450만원	5,400만원
6개월	120	6억원	900만원	108,000만원

초기비용 100만원, 수당 10만원(영업건당), 수수료 1.5%(매출액의)



★ 365결제 서비스 장점 ★

1. 카드매출 누락에 대한 고민 해결
2. 매출정산에 대한 고민 해결
3. 8개 카드사 카드매출 1분 이내 실시간 입금

사단법인 한국간편결제협회 (주)실로암 1666-0598 / 010-2374-2006